

# 99년 총여학생회 해오름식

**특집** 당당한 여자들

**심층분석**

- ◇ 여성주의 연순
- ◆ 노동 순무
- ◇ 동성애 쓰리
- ◆ 성폭력 땡글
- ◇ 복지 공여
- ◆ 성 광탈



## Hot Issue

- 청바지는 성폭력의 안전벨트?
- 그들에게 이혼을 허하라!

## 총여학생회 활동 보고

- ∴ 방중사업보고
- ∴ 등록금 삭감 운동
- ∴ 민주적인 학생자치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 일년사업계획

1999. 3. 30  
12시 ~ 18시  
학생회관 2학동 201호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읽고 한동안 "니나 붓슈만"이라는 여주인공에게 매료된 적이 있다. 나치즘에 반대하며 힘겨운 투옥생활도 불사하는 지식인,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관을 향해 도전하는 개척자, "도덕"이라고 포장된 사회의 또 다른 폭력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한 인간, 그리고 너무나 강인한 여성.. 세상을 가득 채운 두 부류의 인간, 男과 女에 관해 "생의 한가운데"에서는 니나라는 여성과 슈타인이라는 남성을 택했다. 니나는 강인한 여성인데 반해, 슈타인은 여린 남성이다. 슈타인은 니나라는 여자를 통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바라보고자 하며, 그녀를 통해 구원되기를 바란다. "남성적인 여성과 여성적인 남성"!..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진정한 여성상을 말하려고 했을 테지만 슈타인이라는 남자가 등장하면서 어쩌면 왜곡된 성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성을 연약한 존재로 그리면서 다소 격상시키려는 여성의 지위는 결코 올바른 여성의 위치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특히나 남학우들의 비율이 아주 높은 아주대에서는, "남성을 추종하는 페미니스트"를 종종 대하곤 한다. 머리를 짧게 깎고 치마는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되는 옷으로 간주하며 화장이라면 몸서리를 치는 여성! 물론, 개인적인 취향으로 짧은 머리와 바지를 즐기고 화장을 싫어하는 여성들까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무조건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여성의 정체성은 사회가 뭐라 하건, 남성이 뭐라 하건 간에 우리들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진정한 Feminism 또한 "남성다움의 모방"이나 "여성상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성은 따라가야 하는 모범적인 표본도 아니고, 반드시 위로 올라서야만 하는 적도 아니기 때문이다. 슈타인을 니나에게 기대려고만 드는 연약한 남자로 그렸을 때 이미 "생의 한가운데"에 있어서의 Feminism은 실패한 것이 아닐까? 여성의 올바른 성역할 찾기는 남성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 매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메스컴에서 아무리 여성 상위시대라 떠들어도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이 현실이다. 여대생은 취업하기가 몇 배나 더 힘들고 진급의 기회도 적고.. 그런 것들은 접어두고서라도, '여자는 속이 좁다. 여자는 수다스럽다. 여자는 나약하다. 여자는 밥을 잘해야 한다. 여자는 예뻐야 한다. 여자는 순결해야 한다...' "여자"라는 말 아래 달려 나오는 수많은 명제들에서 자유로운 여자는 몇 안 될 게다. 남자 동기들과 어울리다 보면 흔히 듣는 말이 "너도 여자냐?"라는 말이다. 그 말은 "너는 왜 그렇게 여자답지 못하니?"라는 핀잔이기도 하고, 가끔씩은 "호탕한 성격이 좋다"라는 칭찬이기도 하다. 그러다 대부분의 우리 여자들이 그렇듯이, 둘 다 달갑지는 않은 법이다.

이제 진정으로 "여자다움"이 재정의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 "너도 여자냐?"라는 말 대신 "이야, 여자답다!"라는 말이 채워질 수 있도록 말이다. 또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진정한 여자다움, 진정한 대학다움, 진정한 인간다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삶.. 그것이 세상에 의해 규정되어진 것과 다르다면 기꺼이 세상에 반기도 들 수 있는 그런 삶 말이다. 그리고 나는, "젊음"이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포함한 단어라고 믿는다



## 스물 세 살 페미니스트의 연애에 관한 보고서

### 0. 들어가며

선생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을 좋아하기도 했던 때를 지나고3대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을 했다. 집에 가는 길을 함께 걸기도 하고, 손잡고 극장에도 가고, 반지를 선물하기도 했던 그땐 '사랑'이란 무엇을 보아도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었다.1) 달콤했던 첫 연애도 잠깐, 난 대학생이 되었고 그 앤 여전히 고등학생이었다. 우리의 생활반경은 너무 달랐고 예전처럼 자주 볼 수도 많은 것을 공유할 수도 없었다. 내 주위엔 그 앤 말고도 많은 남자들이 있었다(그 앤 주위에는 많은 남자들만 있었다). 그 앤 사사건건2) 궁금해하고 간섭했으며 결국 우리의 연애는 끝났고 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생활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 1. 열렬한 연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나는 동아리도 열심히 했고 선배들도 열심히 따라다녔다. 관심이라는 것은 자기 수준에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통통하고(모두들 이렇게 표현하곤 한다--:) 안 예쁜 나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은 있었다.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다가 그해 가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치밀한 작전 끝에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었고 아무도 모르게 연애를 했다. 같은 학교에서 몰래 연애질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집에 들어가야 하는 통학생에게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도 짧았으니, 나가는 모임은 줄어들고 핑계거리는 늘어만 갔다. 연애를 하면 돈도 시간도 모자라기만 한다더니3) 내 생활 역시 연애의 시작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놓여있었다. 그의 생활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공부도 뒷전, 동아리도 뒷전, 난 정말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렇게 꿈같았던 연애도 역시 잠깐! 백일도 채 못되어 난 이유도 모르는 채임을 당했고4) 며칠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억할 수 없다. 갑자기 내 생활은 텅 비어버렸고, 친한 친구는 누가 있었더라(제일 친한 친구도 연애사실을 몰랐으니--:)? 새로 나온 저 영화는 누구랑 보러가지? 그의 이름 석자가 빠졌을 뿐인데 내 생활은 도무지 문장이 되질 않았다. 그러다 아주 우연히 그를 학교에서 보았고 너무도 멀쩡한 그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1) 노래 가사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자아도취병, 모든 생필품을 선물로 충당하는 선물중후군, 수업시간에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의 얼굴을 떠올리는 상상병 등이 보편적 증세로 알려져 있다.

2) 그 용성은 누구거나, 왜 집에 늦게 갔느냐에서 시작, 갈수록 다종다양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그는 자취생이었으므로 데이트 비용은 대부분 내가 부담했으며 그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므로 만나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4) 이유는 지금도 모른다. 다만 그가 지나친 부담을 느낀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따름이다. 그는 나의 어른스럽고 사려 깊은 면을 좋아했는데 연애가 지속될수록 나는 지나칠 정도의 잦은 연락과 깊은 관심을 보였었다. 그러나 나를 군대가기 전에 그게 가지고 놀았다는 인상도 지을 수 없다. 아무 말 없이 그는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다.

## 2. 별의 별 놈을 다 만나게 된다.

겨울보다 더 추운 봄을 맞이하면서 실연바이러스<sup>5)</sup>에 시달리다가 여차저차 알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엄청나게 예쁜 아이와 씨씨로 유명했으나 위태위태한 연애로 인해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다. 동병상련의 법칙<sup>6)</sup>이라던가? 그는 나에게 많이 의지했으며 나는 또 빠져버렸고... 때 맞춰 그는 깨졌다.<sup>7)</sup> 또다시 일상의 우선 순위가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는 무척 바빴고 연락이 안되는 때도 많았다. 그게 또 다른 여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안 것은 그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한 지 한 달이 채 못 되었을 때였던가? 그에겐 여자가 정말 많았다. 뽀빠에 대고 울먹이는 여자, 아양떠는 여자, 수줍게 속삭이는 여자까지...<sup>8)</sup>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이상 누구와도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방학을 이용해 난 어학연수를 떠나버렸고 때때로 그가 궁금했지만 그는 전혀 궁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 3. 이번엔 다를 줄 알았다.

그 이후에도 연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짝퉁이며 방탕한(!) 생활을 통해 배신의 충격(!)을 달래다 보니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그토록 열심히 하던 동아리도 하는 중 마는 중이었고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시 동아리 일을 열심히 하기로 했다. 새로 사귀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 일에도 빠져들면서 이전과는 다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회 일이 손에 잡힐 무렵 알게 된 다른 학교 친구들 중 한 명과 또(!) 연애를 하게 되었다. 이번엔 사뭇 비장했다. 절대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며 상처받지 말아야겠다고... 그는 이전의 남자들과는 많이 다른, 상당히 이상적인<sup>9)</sup> 남자친구였다. 그에 비해 난 좀 성의가 없었다. 그게 첫 연애였던 그의 기대를 나는 자주 했다.<sup>10)</sup> 글썽, 보복심리였을까? 아님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식의 확인이었을까? 난 그 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그 애 또한 연애 혹은 여자친구에 대한 기대는 별로 다를 것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 애는 나 모르게 힘들어했고 결국 먼저 떠나고 말았다. 그게 아닌데 싶었을 땐 이미 늦어 있었다.

## 4. turning point

길고도 지루한 연애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은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서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연애를 한다. 때때로 안타까운 때가 있으니, 저학년 때 연애를 하느라 사람들을 사귀지 못하는 경우 혹은 고학년 때 연애를 하면

5)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시는 남자를 안 좋아하리라! 멋지게 다짐하거나 인간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 내지는 배신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슬퍼 담배, 술로 노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6) 서로의 연애에 관해 상단을 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대단히 흔하면서도 예지하지 않은 법칙이다. 이 경우 대부분 선화로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달래다가 어느새 사랑의 대화나 러브레터를 주고받는다.

7) 서너 달 후에 안 잊었지만 그는 깨지지 않았다. 깨질 뻔하였으나 계속 사귀고 있었다.

8) 이러한 경우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을 때 "난 너뿐이야", "별 거 아니야"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물어뜯 내지는 오리발 형태의 발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수법으로 인간의 발로 둔갑하여 다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9) 이전의 그들에 비해 수려한 외모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그는 대단히 성실하고 진지했으며 남성우월의식 같은 것도 없었다.

10) 연애가 백일인지 날짜도 세지 않았으며(그 애가 썼지만 모르는 척했다), 발렌타인 데이에 초콜렛도 주지 않았다(그날을 피해서 만났다). 개강을 하고서는 피곤을 핑계로 전화도 하는 중 마는 중이었고 그 애 메세지 네 개 날 나 줘로 메세지를 남겼다.

서 동아리나 주변의 이성친구들을 정리하는 경우<sup>11)</sup>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우정이나, 사랑이나'하면서 갈등하지만 겪고 보니 그것은 굳이 구별할 성질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왜 난 이성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걸까? 잘 모르겠다.<sup>12)</sup> 아무튼 연애를 안 하게 되니 더 많은 사람들과 애정을 나눌 수 있고, 눈치볼 필요 없어서 좋다. 예전엔 뭘 하든 한 사람만 생각났지만 이젠 이 일 저 일에 각각 어울리는 여럿이 떠오른다. 물론 성욕은 원만히 해결할 수 없지만...<sup>13)</sup> 잠깐 사귀기만 해도 그의 소유물처럼 이야기되거나, 서로에게 세세한 간섭을 당연하게 행하는 연애 풍토에서 이쯤 경험을 쌓고 나면 뒷감당이 두려워 연애를 기피하게 된다.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수확이라면 수확일까?

## 5. 나가며 - 고지가 바로 저진데 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

마치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을 것처럼 썼지만 사실, 그 후에도 시도 는 했었다. 게다가 이번엔 친구와 삼각구도가 되었다. 친구는 공공연 하게 우리의 각을 확인하고자 했고 그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 결국 힘들었지만 난 포기해야 했다. 셋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론이 아니었을까... 내가 그렇게 속이 넓어서도 아니다. 단지 친구를 그 남자보다 좀 더 사랑했을 뿐이다(친구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리라--!).

이제 난 새로운 연애를 한다. 사실, 사전적 의미의 연애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흔히 말하는 '여자친구'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미 난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려서 웬만한 사람은 땡기지 않는 것도 한 요인일 지 모른다.<sup>14)</sup> 어쨌거나, 얼굴이나 몸매만으로 사람을 고르거나, 불알친구조차도 연인이 되고 나면 서로를 생기다못해 얹어매 버리는 분위기<sup>15)</sup>에서는 남자에 더 이상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늙기 전에 또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될 지 아직은 모르겠다. 지금은 죽을 때까지 만날 친구들이나, 몇 년 새 갑자기 늙은 부모님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더 사랑한다. 적어도 이들과는 평생 깨지기 힘들 것 같아서인데, 언젠가는 남성성을 지닌 사람과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끊임없이 바란다. 그래서 요즘은 서너 살 어린 연하의 남자들을 짝퉁이고 있다.<sup>16)</sup> 그런데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나 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 남자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1) 대부분의 경우 여자 쪽이, 남자가 어린 경우엔 남자가 정리하기도 하며 내 친구들보다 예전의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된다.

12) 단지 '땡겨서'라고 표현하기엔 뭔가 부족한 듯 하다. 이 부분은 개인의 연애사 규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결혼은 주로 이성과 하나야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무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면 성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유가 없다.

13) 그러나 연애를 해도 원만하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상대가 있다는 안정감뿐이지...

14) 많은 사람들이 이성이 '코일 때' 쓰는 방법이나 언어는 비슷하다. 웬만한 경우 저 남자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는 시점에서 때로는 그런 얽은 수법이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15) 친한 친구였다가 연인이 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돈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후회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 연인에게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여자가 더 어린 커플의 경우 주도권이 남자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대로 남자가 어린 경우에 주도권이 여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남자가 더 어린 커플의 경우 나이 차를 떠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커플관계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 특 집 당당한 여자들 - 셋

여성학 강사 신정혜

신정혜 선생님은 가벼운 퍼머머리에 나이보다 너무나 젊어 보이는 밝은 미소를 띠고 총 여를 찾아오셨다. 대중들과의 교감을 소중히 하신다는 말씀답게, 학생들 한사람 한사람의 평가에 대한 배려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였다.

조금은 높은 톤의 소녀 같은 목소리의 선생님과 친구처럼 여성학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는, 만들어 가는, 생산적인 운동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여성주의의 또 다른 운동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지면관계로 많은 부분 실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총여: 우선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여성학 수업에 쓸 자료를 찾느라고 학우들이 총여학생회를 많이 찾아와요. 선생님과 저희는 역시 벨레야 뵈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요??\*:: 오늘 선생님과 여성학을 함께 하는 동지로서, 우리가 지향하는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좋은 얘기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신정혜 선생님(이하 신): 가볍게 진지한 얘기를 하자는 거죠? ^^

총여: 바로 그거죠!! 감동적이면서도 정확한 표현이었어. 적어놓고 외우자!!^^

우선 선생님이 여성학을 공부하시게 된 계기를 들어봤음 좋겠어요..

신: 그건 여러분이 총여를 한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요? 이 땅의 여자로서 태어나 온갖 차별과 억압을 견디지 못하여...^^ 하하. 실은 대학 때 학생운동을 했어요. 학생운동 안에서 많이 진보적이고 다양화된 사고를 배울 수 있었지만, 사실 학생운동 안에서의 여성운동은 상당부분 지엽적이었고, 성차별의 벽이 너무도 두터웠죠. 그러나 여자로서 느끼는 차별이나 억압은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언론, 출판 쪽에 관심이 있어서 졸업 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여성들을 의식화시킬 수 있을 만한 출판물들, 여성 문제 전달 출판사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여성 문제를 다룬 출판물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공안정국으로 출판물 탄압을 겪는 시기에 된서리를 맞아 너무 힘이 들었어요. 출판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출판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여성학적 이론 체계를 많이 쌓고, 대중과의 교감을 통한 축적이 우선시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출판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중과의 교감을 통한 이론의 축적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총여: 아주대학교가 공대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데 여성학을 강의하실 때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신: 상당히 공감 가는 지적이에요. 다른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아주대는 좀 경직된 분위

기예요. 보수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상당히 신경 쓰게 된답니다. 긴장도 많이 되구요.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교감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학생들이 강의 열심히 듣고, 열심히 노트 필기하는데 바빠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거 같아요.

총여: 결혼 하셨나요? ^^

신: 그럼요. 저 아줌마예요. 애도 둘이나 있는 걸요..^^

총여: 페미니스트로서 결혼 생활을 어떤가요?

신: 여성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살기가 쉽지는 않죠.

나는 여성학을 공부했는데 이런 이런 것은 부당한데 라는 것을 확실히 지적해야 한다는 의무! 대외로 인해 현재의 삶이 억압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이혼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남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죠. 그냥 페미니스트들이 이혼하고 혼자 살아버리면 그래 너 잘났다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죠.

학생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달레마이기도 한데, 어떠한 구조를 깨야한다! 파괴해야 한다! 에서 벗어나, 만들어가고 생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총여: 남편은 어떤 분이신가요?

신: 스스로를 이론적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죠. 하지만 기존의 의식구조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특권을 포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가정에서 동등한 분담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지탄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살아가면서 이론적인 면보다 현실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남편에 대한 이해의 부분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이해하는 것과 거부감 사이의 괴리, 반발심으로 힘이 들 때도 있죠.

이런 문제는 정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총여: 총여학생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신: 음.. 아까 말했던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혜'라는 말을 잘 활용했으면 해요. 거부감이 있거나, 충격적인 이벤트보다는 집안을 넓혀 가는 단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성학이 여전히 편파적으로 인식이 되죠. 피해의식이 남을 누르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되잖아요. 성역할의 억압도 남녀 함께 풀려고 하면서, 기존의 남녀의 불균등한 문제에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회가 바뀌고 있고, 구조나 제도적인 측면보다 개인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그들의 일상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운동했으면 합니다.

총여: 즐거운 시간이었구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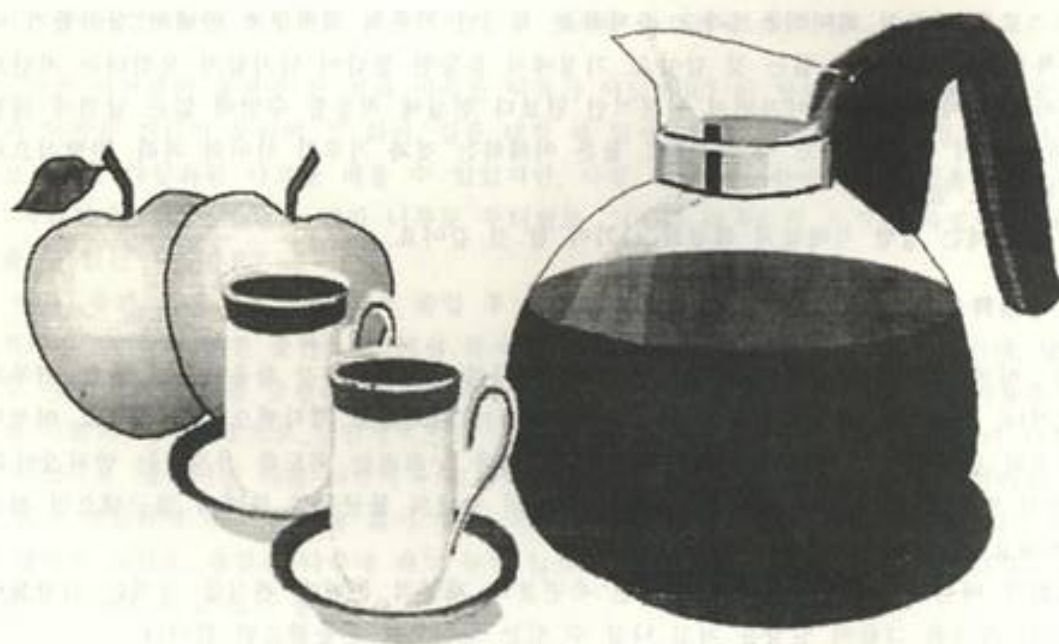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신정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총여인들

##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커피는 총여에서 함께 마시는 커피입니다

그리움에 저마다의 향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면 나는 늘 어떤 향기가 그림습니다  
만나도 늘 그리운 당신처럼 항상 함께 하고픈 총여

총여에서 마시는 커피는  
당신이 함께 하기에 더욱 향기롭습니다



성해방의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리 -- **총여**

## 인 순 총여가 소송을 거는 법

우리는 학생회라면 그리고 운동진영이라면 당연히 이리이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



우선 **학생회**를 살펴보자.

집행부들은 서로가 학번으로 그 사람의 역할과 대사가 정해져 버린다. 그 조직 체계조차 회장, 부회장 그리고 그 밑의 집행부들로 이루어져 서로 간의 대등한 소통보다는 하달식으로 일이 진행된다<sup>17)</sup>. 그로 인해 개개인의 다양한 의사와 감정들이 무시되기 쉽고, 선배들 혹은 조직 내부의 사람들에 의해 자신이 해야 할 몫이 정해진다.

그러면 흔히 진보적이라 생각되는 <sup>18)</sup>운동진영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떠한가.

엄격히 공·사를 분리해서 거대한 정치담론 이외 개인의 일상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리고 어느 조직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성역할이 고정화된 모습, 또 그 내부의 사람들의 가부장성, 그리고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그에 대한 은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5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는 **여성주의**를 정책의 중심에 놓았다.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단순히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목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에 따른 여성주의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학생회로써 나름의 운동을 하겠다는 총여는, 이미 위에서 제기한 모습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총여에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선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 형성**에 주목한다. 획일적인 조직 안에서 어떤 행동을 강요당하고, 학번이나 지위에 의해 억압적으로 개인의 역할이 규정되는 것을 거부한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개인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권력은 이미 억압의 다른 이름이다. 개인을 한 명의 운동가로서, 혹은 선·후배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해야 한다.

한편, **사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영역**에 주목한다. 사적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는

17) 학생회라는 특성상, 가장 상부의 총학생회로부터 단대, 학부, 전공 혹은 학년회로 이르는 상·하위 개념이 존재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18) 여기서 운동권이란 기존의 학생운동 진형을 말한다. 운동이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지향하는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것이다. 일상의 중요성을 나타낸 표현이기도 하다. 운동을 한다는 것을 자기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운동가들만의 운동 혹은 단순히 구호로써의 운동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서부터 해나가는 운동이 중요하다.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재미"라는 측면에 주목한다. 어느 것도 강제되지 않고, 개인이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재미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여 외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주목한다. 운동을 함에 있어 주체로서의 운동가가 객체인 대중을 이끌어 간다는 논리에 동조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운동 방식도 권위주의적 방식을 지양한다. 일방적인 제시가 아니라 그 내부의 논리로서 공유하고 개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그 안에서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사적(이라고 생각되는) 영역을 중시하면서 외부와의 소통을 지향점으로 하는 총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자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서로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진 건 아닌지. 그로 인한 방만함은 '게으름의 미학'이 아니다. 자율성을 보장받으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적(이라고 생각되는)영역인 개인 삶에서의 운동을 중시하다가 거시적인 모습들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공적·사적**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해내야 하는 부분이다.

또 '재미'를 중시하다보니 단순히 재미라는 외형만 있고, 내용이 간과되었다. 재미를 가능케 한 조건이 스스로의 생각과 창의력으로 자율적인 운동을 해나가는 가운데, 서로간의 원활한 소통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단순히 '객체·주체'로 구분된 권위주의적 방식이라고 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구체적인 방식의 고민이 없었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제껏 선행되어야만 했던 총여만의 방식에 대한 고민에 소홀하지 않았나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5대 총여란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지 벌써 4달이 되어간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이나, 기존의 학생회나 운동진영의 방식을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얼마만큼은 성과도 있었고, 우리만의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모습들에 대해  
궁금없이 고민하고 고쳐나가겠다는 처음의 마음은  
아직도 여기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 마음 하나로 총여는 여성주의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

## 순무 세네기와 순무세기의 데이트

어.. 00야 안녕.. 그래 마침 너 찾아 다녔었는데..^^

우선 새내기인 너에게 뭔가 얘기를 꺼내려니 참 조심스러워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진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놀아주는 선배만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만은 그런 선배보다는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선배가 되었으면 하거든.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었으면 하는데... 나랑 잠시 데이트할까? 좋지? (좋다고 말해!!! ^^)

너 혹시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씩씩한 아들과 참한 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니? 이상적인 가정..이라..음.. 그렇지만 현실과는 다르잖아. 아버지의 월급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대부분의 가정은 어머니의 부업..이라는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있지. 물론 어머니들의 일은 부수적이고 가사를 보조하는 정도로밖에 여겨지진 않지만... 여성들은 무슨 일을 하겠니? 우선은 가사 일이 있을 수 있겠지. 가사노동은 여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설거지 청소 빨래 밥하기 애 돌보구 교육에... 정말 해도해도 많은 일.. 자 취해봐서 알지?



남성은 사회적인 노동..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하는 거라고 다들 생각해. 그렇지만 너도 알다시피 가사노동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전담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가정전체의 책임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에게만 가중되어왔고... 그렇다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된 것도 아니면서 말야.. 앗! 이런 내가 넘 흥분했구나. 그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

주제로 돌아와서...

세계노동시장의 60%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 소득 중에 여성의 소득은 오직 10%에 머무르고 있고 또.. 전세계의 재산 중 오직 1%만이 여성이 소유하고있다는구나. 정말 놀랍지 않니?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년에 37.2%에서 94년 47.9%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대개 그 심각성을 모른 채 지나치기. 경제지표로 보면 (뽀하하.. 유식해 보이지?) 1996년 여성경제활동 인구는 전체의 48.7%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증가해왔어. 그렇지만 여성들에게 취업이란 그야말로 배 썩고 등 따고 목 빼더라도 (^^) 하늘의 별 따가지.

전체 대졸여성 중에서 50대 그룹에 취업한 여대생의 비율은 1989년 1.9%(대졸남성 21.4%) 96년 5.2%(대졸남성 26.8%)에 불과하다고. 게다가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많은 여대생들이 휴학을 하고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몰두하고 심지어는 취업난을 학벌로라도 통과하고자 대학원진학이나 유학을 하기도 하구... 그렇지만 취업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니?

잘 나간다는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여학생이 취업하기 너무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야..(그...D그룹에서 모든 놓고 있는 여학생을 고용하지도 않을 테니...) 남학생취업률 76.51%에 비해 여학생은 58.41%밖에 안 된다는 구나..19) 그것도 우리학교 취업현황이 다른 학교에 비해 나은 거라니... 타학교 여학생들의 경우는 아마도 더 심하겠지..

이효수라는 사람(나랑 친한 사람은 아니야..^^)은 한국의 노동시장을 4개의 단층으로 구분하고 있어. 먼저 고용조건이 가장 좋은 4단층은 대졸남자, 상대적으로 조건이 떨어지는 3단층은 고졸남자를 중심으로 전문대졸자나 대졸여성, 그리고 2단층은 중졸이하의 남자와 중.고졸여성. 마지막으로 1단층은 고용조건이 가장 안 좋은 상태로 학력에 관계없이 충원되는데, 동일한 학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가절하 되는 실정이지.

정말 웃기지 않니? 같은 돈 내고 같은 시간 들여서 공부했는데 말야.. 억울한 노릇이라구..

취업하고 나서는 어땠니. 일단 들어가지만 하면 앞날이 탄탄대로일거라는 기대는 말기 바래. '여성우선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IMF의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오.. 노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여성이 취업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고, 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케케묵은 진리야. 결혼하면 가정에 몰두하기 때문에 여직원이 업무능력이 저하된다는 근거로 사표강요, 대기발령, 결혼퇴직 등의 방식으로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해고되어..(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거라고 생각하지.. 기가 막히게도...) 특히 근속연수가 높은 여직원들은 고비용

저효율.. 음.. 말하자면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금, 유급육아휴직 비용 및 복리후생비용을 받으면서도 일은 그만큼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성들은 주로 홍보, 비서, 단순사무직 등의 주변업무에 배치되게 마련이야.

게다가 IMF이후로는 여성은 남성의 경쟁자이므로 남성이장에게 자리를 양보해야한다는 우선 해고의 압력이 더욱더 가중되고있어. 사실 그렇잖아.. 어차피 대대적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면 남자에 비해 생계에 대한 책임이 덜하고 생산성도 낮은 맞벌이 여성근로자들이 양보



19) ①98년 2월 총 졸업자수 : 1355명 (여학생 : 214명 남학생 : 1141명)

총 취업자수 : 636명 (여학생 : 82명 남학생 : 554명)

총 진학자수 : 295명 (여학생 : 43명 남학생 : 252명)

군입자수 : 67명

전체 진로 : 998명 (여학생 : 125명 남학생 : 873명)

②전체취업률 =  $\frac{\text{취업} + \text{진학} + \text{군입}}{\text{졸업자수}}$  = 73.65%

(여학생 : 58.41% 남학생 : 76.51%)

③순수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졸업자} - \text{진학} - \text{군입}}$  = 64.70%

(여학생 : 59.93% 남학생 : 62.32%)

\* 99년 2월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는 4월중에 나온다는 군요.. 부득이하게 98년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99년과 98년 자료간 오차는 별로 없을 거 같은데..^^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잖니.

그 말에는 벌써 남성은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은 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이대올로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사실상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떠맡아야 한다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게되. 결국 여성들은 신원모양처가 되어야만 하는 거라구... 가장인 남성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가사 일을 부담하고, 그리고 핑크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툭(~~)이라도 팔아야되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야...



그렇지만 취업 후 성차별이라도 당해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 준비된 실업자... 어휴~~ 나도 곧 실업자가 될 몸... 먹고살기 위해 아무 일이라도 해야하는 저소득층 여성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해. 취업이 절실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고있어.. (물론 이것은 남성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야... 알아. 알아.) 특히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 여성이 전체 취업여성의 6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여성들이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저임금, 장시간의 비정규노동에 시달리게 되겠지...

도대체.. 왜.. 정말 먹고살기도 힘든 마당에 이런 어려운 문제까지 생각하고 살아야 하느냐고요.. 답답하다고요...

남성이라고 뭐.. 별수 있니?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내라면 누구나 제 식구는 먹여 살려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말야.. 어느 날 갑자기 실직하거나 파산해봐.. 가족의 생사가 자신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온 남성들의 실패는 곧 한 가정의 실패가 되어버려. 만약 여성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가 된다면..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도 생계부양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해... 물론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는 모든 일이 다 어렵고 막막해 보이는 게 당연해..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걸 알고 있지? 남성은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은 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체제는 이미 무너지고있어. 일하지 않는 여성은 없다고..



그래 .. 내가 다 소화해내기에는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너도 이제 대학인이고, 또 반사회인임을 생각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아..힘들다. 다 이해하긴 힘들겠지. 내가 너무 정신없이 말 한거 같기도 하고..

00야.. 내가 너 하나만은 확실히 키워주마.. 그럼 이제 우리 밥 먹으면서 인생에 관해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구.. 뭐~~ 식 풀긴..푸하핫 좋지???

후배님아.. 가십시오..아자!

written by 순무새기 : 노동을 말한다는 것은 너무도 조심스러운 일이다.

검은 참새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검었습니다. 검은 참새는 그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다른 참새들이 너무나 보였습니다. 갈색의 빛깔. 왜 자신만 검은 색이어야 하는지. 다른 참새들은 항상 '난 왜 검은 색이니?' 하며 검은 참새를 따돌렸습니다. 검은 참새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검은 참새는 물감 통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참새는 둥그스 둥그스 자판을 색칠했습니다. 검은 참새는 매우 기뻐서 참새들에게 보였습니다. 노그도 검은 참새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따돌리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검은 참새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검은 참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담으면, 자신이 동등해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어느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검은 참새는 줄거름 속에 항상 불안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모도 그 마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벼가 몹시 심하게 왔습니다. 참새들은 다들 나무 속에 숨어서 벼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가 보려지면서, 참새 한 마리가 날개를 다쳤습니다. 저 벼줄기에는 어모도 강한 참새라고 해도 자식 잡으려면 모습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참새도 그 참새를 구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벼병들과 벼병에 그 참새는 외경스러워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벼를 맞은 참새 깃털의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색의 빛이 얼룩진 검은 참새는 외로웠습니다.

검은 참새는 힘겨, 날개 다친 참새를 구해 나무 속으로 옮겨놓는 다른 이들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검은 참새는 오노게 울었지만, 벼병에 묻혀 돌려져 있었습니다. 검은 참새는 멀리 날지 못하고 벼병에 휩쓸려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검은 참새는 조의를 둘러보니까 모두 참새 한 마리가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자가와 같은 벼를 된 참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검은 참새의 동지였습니다. 자신 이외에도 검은 참새가 있었다 것입니다.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느낌이란 것. 자신과 슬픔에 대해서. 둘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서로의 격정을 의로써, 검은 참새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 같이 지내기로 했고, 언제나 함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참새의 모자가 검은 참새의 동우를 발견했습니다. 그 참새들은 검은 참새가 예전에 같이 지내던 모래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검은 참새들을 찾아내려 했으나, 예전의 검은 참새를 발견하는 반가워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검은 참새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검은 참새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도리어 많은 친구들이 자신을 인정해 준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엄마~ 저 참새들은 왜 검정색이야?' 오연이 지나가다 스쳐 가는 아이들.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른 참새들. 처음엔 검은 참새는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을 영원히 갈색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아무 말도 못하고 검은 참새 둘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영원을 약속했습니다.



검은 참새 한 마리가 언제부터 일기 시작하더니, 겨울을 지내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참새 마을에 순식간에 돈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많은 참새들이 검은 참새의 동지로 몰려왔습니다. 전염병이 검은 참새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새들은 둘을 단지고 동우를 보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검은 참새는 다른 참새를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검은 참새는 병든 동우를 데리고 동우를 데왔습니다. 둘에 맞은 상처가 쓰러졌지만, 그 상처보다 더 큰 상처는 지을 수 없게 마음속에 남겨졌습니다. 동우를 떠나 어모도 있는 곳에서 검은 참새는 열심히 견뎌냈습니다. 또 하나의 자신을 잃을 수 없었기에, 참새도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 그래도 함께여서 참을 수 있었지만, 그마져 시작해 벼병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검은 참새는 너무나 모래를 향해 결국 같이 전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네 덕분에 난 행복했어.' 온몸은 계속했습니다. 어모도 모래는 외진 곳에서 검은 참새 둘은 그렇게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은 세상을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운명을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어모도 모래 그 둘은 둘의 만남을 만족하며 그렇게 어모도 그들의 이야기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모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그를 원망할 수도, 탓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듯. 슬픔을 참아왔기 때문에.

어모도, 노그도. 검은 참새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니까요.

“어머머! 저 사람이 호모레...”

“더러운 호모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돼!”

왜 동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덮어두고 혐오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



어떤 사랑도 제약은 있을지언정 “끔찍”하거나 “더러운” 것은 아닌데, 왜 동성을 사랑하는 일은 사랑이 되지 않고 “섹스” 그 자체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사람들이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이라는 말만 들어도 인상이 찌푸리면서 욕설을 내뱉고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 현상을 가리켜 “호모포비아(homophobia)” 즉, 동성애 혐오증이라고 한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를 바가 없으며 한 명의 사람이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을 사랑하는 일일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성애의 당위성도 “정상적”을 가장한 편견과 “자연적”을 표방하는 완고하기 짝이 없는 고정관념이 만들어 내는 “동성애 혐오증” 앞에서는 추잡한 음모와 광기 어린 성욕에 지나지 않게 된다.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여져 왔듯이 눈요기 감으로 주인공을 품 나게 하는 총알받이가 되거나 혹은 그 죄(?)의 응징인 양 비참하게 죽는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게이는 존재해 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박수를 쳤고 게이를 혐오하며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과연 이러한 혐오감은 어디에서 시작한 것일까?

왜 같은 인간인 동성애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재하지 않는가? 동성애자는 인류의 독버섯인양 음지에서 기생하는 변태들에 불과한 것인가? 무엇이, 대체 그 누가 이런 틀들을 동성애자에게 강요하는 것일까? 언론에 이지에 당하고 그러한 굴욕을 말없이 견디어 내야 하는 동성애자 개개인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감과 존재의 무기력을 우리는 언제까지 맛보아야 할 것인가.

유난히 성에 관한 한 유교적인 도덕적 결벽증이 만연한 우리 나라에서 동성애자가 “동성애 혐오증”을 어떻게 이겨내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께 작은 고민을 던져 보고 싶다..

♣ 스토킹(STALKING)이란 무엇인가?

상대가 싫다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가 좋아서 따라 다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연애감정을 갖고 상대도 나를 좋아할 것이다,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이성에게 접근해서 싫은 행위나 온갖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이것이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이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상대가 정신적 고통,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구별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 그건 강간이나 성희롱이나 의례적인 접촉이나 하는 시비와도 같아서, 스토킹도 행위 자체보다 상대(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싫다는 데도 계속 쫓아와서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힌다면 이건 스토킹이다. 스토킹을 하는 행위를 스토킹(STALKING), 그리고 스토킹 하는 사람(가해자)을 스토크(STALKER)로 통칭하고 있다.

♣ 왜 이제 와서 스토킹인가?

이것은 복잡한 현대 사회가 낳은 신종 범죄 유형의 하나다. 도시라는 익명성, 발달된 통신 수단, 개인 정보의 유출 등 복잡한 요인들이 스토크를 양산하고 있다. 스토킹이란 용어가 사회 현상으로 등장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미국에서도 90년 이후의 일이다.

이웃 일본에서도 최근 스토킹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이 보도되면서 큰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다. 공론화 된 이후 미·일 공히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건이 10배로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스토킹 자체가 증가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간 혼자 앓기만 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또 상담소나 경찰에서 스토킹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요인이 더 크다.

♣ 스토킹의 실태

미국 보고에 의하면 스토킹의 피해자 수는 공식 집계된 것으로 연간 170만 명쯤 되며 여성 피해자가 80%이다. 그전엔 유명인이 대상이었으나 최근엔 보통의 일반인에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나라에선 아직 공론화 단계도 아니어서 그 실태를 파악할 순 없다.

♣ 피해증상

스토킹 양상이 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신체적 위협이 있었던 정도라면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때는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과를 밟게 된다.

당시의 상황이 계속 떠올라서 불안 초조하게 되며 꿈에도 시달린다. 비슷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도 거의 발작을 일으킬 정도이며,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출도 못하게 되므로 사회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지나친 경계심을 갖게 된다. 이런 급성인 경우가 아니라도 피해자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등 전화공포증에 시달리게 된다. 심한 불안 초조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한다. 외출하기가 두렵고 사회 생활이 힘들어진다. 이와 같이 피해증상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상담기관이나 경찰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

피해자가 정말 못 견디는 건 오히려 자기가 의심을 받게 된다는데 있다. 「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여성인 경우 꼬리를 쳤으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몰아 부친다. 남자 피해자인 경우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그 여자가 원한을 품은 게지」하고 의심을 받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을 끓여야 한다.

♣ 스토크를 식별하는 10가지 방법

스토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한 사람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적어본다.

- ① 어릴때 같이 유치한 사람
- ②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보이는 사람
- ③ 의존적이다
- ④ 자기 본위로 자기 이야기가 많은 사람
- ⑤ 자기 통제나 자제가 부족하다
- ⑥ 외톨이거나 친구가 적다.
- ⑦ 극단적인 사고나 행동을 한다
- ⑧ 사람을 요모조모로 시험을 잘해 본다.
- ⑨ 유행에 민감하여 멋을 부린다. 자기 현시욕이나 과시가 심하다.
- ⑩ 자존심이 세면서도 내 앞에서 쉽게 자존심을 굽히는 사람



이상 흔히 올 수 있는 특징 등을 종합해 보았지만 어딘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나 섬뜩한 느낌이 들면 조심해야 한다.

♣ 대처방법

막상 본인이 스토크의 표적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만나서 설득한다는 건 오히려 스토크를 조장한다. 전화가 와도 간단히 끝내야 한다.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하는 협박은 안 통한다. 스토크는 그런 형태로라도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쾌감을 갖기 때문이다. 딱 잘라

말하되, 혼자보다 믿을 만한 제3자를 동반하는 게 효과적이다. 경찰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다. 사생활 운운하고 사무적으로 대하기도 하므로 심각성을 잘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요즈음 경찰서마다 여자 경찰관이 상담에 응해주고 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스토크에게 한마디하는 것이 효과적 일수 있다.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도시의 젊은 독신 여성이 표적이 되는 수가 많으므로 친구와 함께 사는 것도 방법일수 있다. 집단 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스토크는 몰래 들어와 일기장을 훑쳐보기도 하고 사진, 잠옷 등을 훑쳐 가기도 하고 도청 장치를 해 놓을 수도 있다.

만용을 부려선 안 된다.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 스토크가 지정하는 으스스한 곳에 가는 건 금물이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거절의 뜻이 확실하다 싶으면 순간적으로 격노, 폭행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시판되고 있는 치한 방지용 기구들도 유용할 수 있다.

#### ♣ 스토킹과 범죄도

우리 나라에는 아직 스토킹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진다. 스토킹에 의해 피해자가 당하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 역시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가볍게 처리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흔히 회자되듯이, 상대방이 받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요한 따라 다님으로 여성을 쫓아다니는 행위가 미화되기도 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침묵전화"에 대한 판례에서 보듯이 스토킹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이 차츰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스토킹이라는 제하의 법률 제정은 따로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을 위시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불안감 조성, 장난전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은 물론이다. 문제는 일반인이나 경찰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 얘기 하나

### 여자는 나무가 아니다!!



지난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미행, 전화, 성추행 등으로 고초를 겪은 적이 있다. 대동제 준비를 같이 하며 알게 된 2과 동기 남학우 S인데, 처음에는 신경도 많이 써주는 듯 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 좋은 친구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난 뒤, S가 날 집에까지 바래다주게 되었는데, 얘기 좀 하자며 공원 bench에 앉히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얘기를 꺼내는 것이다. 난 싫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으나, 결국 그날 밤 나는 강제 키스와 성추행(가슴 만지기)을 당하고 말았다. 그 뒤로 그는 얼마간 내 남자 친구처럼 행세하려 했으며, (마치 키스 한 번으로 날 가졌다는 듯) 공공연하게 내 이름을 들먹여 날 곤란하게 만들었다. 밤늦게, 아니 이른 새벽(3~4시 경)에 술에 취해 전화를 해대거나, 미행하거나,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는 그의 버릇은, 내가 아무리 싫은 티를 팍팍 내도, 6월에서 11월까지 이어졌으며,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은 점점 더 악화 되어갔다. 또한 S의 과 친구들도 내겐 S와 같은 친구였는데, 점점 대하기가 서먹해져갔다.

이제 그 Stalking이 그쳐서 다행이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언덜머리가 난다.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훗! 그러나, 세상의 모든 Stalker는 들으라! 여자는 나무가 아니다. 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식물화 시키는가?

## 공 아 여성복지, 필요인가 과보호인가?

"왜 여자 휴게실만 있고 남자 휴게실을 없는 거야.."

여학생 휴게실의 존재를 알고 있는 남학우들한테 우연찮게 듣게 되는 불만이다. 그들은 총여학생회가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만 여학생 휴게실 문제를 보면 이것은 여학생의 편의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남녀 불평등의 예가 아니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휴게실 문제는 단지 휴게실, 그 방의 유무를 살펴볼 문제가 아니라, 왜 여학생 휴게실이 생겨났는지, 또 여학생 휴게실이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물론 요즘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다가나, 캠퍼스 잔디밭에서 피곤할 때 낮잠을 잔다가나 하는 행위를 남성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성들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같은 행동이라도 여성들이 할 때는 그 행동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물학적 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행동은 사회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니깐 남성의 행동은 사람의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여성의 행동은 사람이 아닌 여성의 행동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틀 속에서 여성의 행동은 극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사회의 따가운 시선의 창으로부터 여성들에게 잠시 피할 자리를 주는, 즉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여학생 휴게실의 역할이다. 그 안에서 여성들은 사람의 행위를 여성으로써가 아니라 자유롭게 사람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여학생 휴게실이라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 사라지고, 여성들의 행동이 여성으로써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존재 가치를 잃고 당연히 없어지는 -해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인 것이다.

학교 내에서 나타나는 여성 복지 관련 문제는 여학생 휴게실 정도지만 사회로 나가서의 노동법 안에서의 여성 보호 규정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이것이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나친 여성 보호냐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남성들에게는 없는 생리 휴가, 출산 휴가 등 여성들만 누리고 있는 이 특권(?)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권들에 대해 이것 역시 남녀 평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냐고 반문을 한다. 이런 문제 -과보호라고 생각되는 것 말고, 가장 근본적인 출산에 관련된-들은 여성의 출산이 사회 구성원을 생산, 유지하는 일을 한다는 면을 생각하면 단지 남녀 평등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여성들이 "우리는 작업에서의 남녀 평등을 이루기 위해 애기를 안 낳겠다"고 선언을 한다면 당장 10~20년후 그 국가 존재 자체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

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출산 관련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출산, 양육문제를 다루어서 이런 문제로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인 남녀 평등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얼마 전 여성 공무원에 비해 남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부서에서 숙직을 남자만 하게 되니 너무 자주 하게 되어 그 직원들이 남녀 평등 차원에서 여자도 숙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만약 숙직이 업무상 꼭 필요한 것이고, 여성들이 도저히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이 숙직을 하지 않는 것은 여성을 과보호하는 것이고, 여성도 숙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효용성에서 꼭 직원들이 숙직을 해야 하는가.. 숙직문제는 차라리 그 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숙직을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해 대체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



노동법을 보면 도덕상 또는 보건상 해롭거나 위험한 사업에의 여성사용 금지(제 51조), 여성의 갠내 근로 금지(제 58조), 야업 및 휴일 근로의 원칙적 금지(제 56조),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제 59조), 60일의 유급 출산휴가(제 60조 1항)등 여러 가지 여성 보호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들이 구체적 적용 기준이나 운용규정의 뒷받침이 없어 실제로는 그다지 효력이 없는 실정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쩌면 이런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규정들에 대해 남녀 평등의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의식이 깨어있는 고용주들이 확실한 남녀 평등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일지도 모른다.(세상에!) 사실 평등론자들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나 모성 기능 등과 같이 생리적 기능의 차이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보호가 최저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밖의 현행법상 보호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좁은 범위의 여성 보호차원(생리적인 면)외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남녀 평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나친 보호이고, 여성 능력의 발휘 차원에서 과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람들은 과보호를 배제한 능력에 따른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개인 적으로는 평등론자들의 생각에 동감이고,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여성들의 능력 발휘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도 도저히 여성이라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그 일에서 빠지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모성을 존중받으면서 직업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는 근로 여성을 위해 양질의 탁아시설을 갖추고 - 그리고 꼭 근로 여성에게만 양육의 문제를 넘길 것이 아니라, 근로 남성도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근로 여성이 아니라 근로자가 되겠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여자라서 구속되는 것 없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짱 돌

## Sex에 관한 수다방



여자는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지. 지금까지는 그런 말이 여자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기도 했어. 그치만 이제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래 우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 격식이나 권위, 그런 겉데기에서 벗어나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풀어놓다보면 더욱 발전적인 결론이 제시될 때도 많단 말야.. 그런 마음으로 수다 방을 열어보기로 했어. 그것도 정말 조심스러운 주제인 'SEX'를 가지고 말야.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참가자: 평소에도 좀라 밝히고 이번에도 꼭 'sex'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자고 조른 Z

스스로가 천연기념물이라고 이 논의 주제에 열받는 H

요새 연하 애인 생겼다고 입이 귀에 걸린 N

암전, 정숙해 보이기까지 하다가 성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열변을 토하는 B

평소에 어리버리한 그러나 가끔 중요할 때 확실히 분위기를 제압하는 카리스마 S

논의할 때만 되면 다양하고 이성적인 사고로 돌변, 토론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I

항상 소수자의 입장에서 생각, "나는 주로 반대하니까 염두에 뒀" 귀여운 악동 T

(내용의 선정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설정합니다.)

Z: sex에 관해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sex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 왜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거 같애. sex에 있어서의 당연의 세계, 처녀막이라든가 순결 이데올로기, 또 자라오면서 자신이 겪었던 성에 관한 교육들, 아니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B: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

H: 맞아. 나는 이런 주제 가지고 얘기하면 열변어. 소외감 느껴서... 친구들이 나 천연기념물이라고 놀린다니까..T.T

B: 근데 처녀막 있잖아.. 어제 혼자 Fire라는 인도영화를 봤는데, 거기 어떤 여자가 sex를 하고 나서 피가 다리를 타고 줄줄 흐르는 장면 보여주더라. 정말 그럴까?

S: 맞아, '연인'에서도 보면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B: 그냥 환상인 거 같아. 피가 나온다는 것을 처녀라는 것,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면서 그 부분을 과장시키는 거지.

Z: 근데 정말 피나는 여자 많아?

H: 의학적으로 열 명 중 한 명이 처녀막이 없고, 나머지 아홉 명도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열된다.

T: 원래 처녀막은 막이 아니라, 근육의 링이래.. 첫 성교때 피가 나는 건 남자의 테크닉 부족이라니까... 서로가 sex에 대해 충분히 합의하여야 하고, 질 분비액이 많이 나오도록 신경을 써야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야.

Z: sex에 대해 남자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남자는 냉고 싫어하고, 여자는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고 그런 거...

B: sexy하다 라는 말의 순 우리말이 먹음직스럽다, 박음직스럽다래잖아..

I : 그렇게 우리가 공유하는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쉽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S : 그래, 단순히 텍스트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일반적인 인식만으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그럴 거라는 생각도 편견일 수 있어. 하긴 모든 남자를 다 경험할 순 없겠지만 ^^

Z : 우리 성교육이나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자.

T : 친구가 왜 포르노를 보고 싶어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했어. 어떤 교수가 포르노에 관해 심리 분석을 한 걸 보았는데, 관음증 측면도 있고, 기본적으로 성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 잘못된 성교육을 받고 우리처럼 남들도 그럴까 하는 마음에 포르노를 본다고 하더군.

B : 포르노에서 보여지는 피학적 여자의 모습을 통해 남성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I : 금기시지 되기 때문에 더욱 추종하게 되는 것 같아.

Z : 남자들에게 포르노는 사회적으로 일정정도 허용되지 않나???

I : 최초로 접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금기시 되잖아. 그 때의 금기가 더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을까?

H : 권장되지 않는 건 성에 대해 얘기 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금기지. 그 안에 이미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

N : 남자들은 한 번씩은 본다고들 하더라. 남자라면 꼭 봐야 한다는 인식이 남성세계에 자리잡혀 있는 것 같아.

T : 경험 없는 여자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야??? ^^

B : sex를 해야만 어른이 된다는 의식이 작용하는 것 같아. 포르노그래피는 sex이전의 단계로, 한 단계씩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N : 친구가 군대에 있는데, 총각이라고 하면 왕따가 된대더라. 나올 때마다 안마 시술소나 술집에 가라고 다들 난리라고.

Z : 정말 군대는 개별적인 남성들을 똑같이 사회적으로 타락시키는 기제 같아...정말 화나!!

I : 만약 포르노가 여자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고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말이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그렇게 된다면, 남녀의 차이라는 게 또래집단 안에서 허용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닐까?

N : 아닌 것 같애. 포르노그래피에 나오는 여자들은 보통의 여자들이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일 수 없고 더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잖아..

T : 요즘 포르노는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내용상에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도 있다더라. 여성이 성적 주체로 나오기도 하고...

Z : 글세, 내가 생각하기엔 내용에 있어서 여성을 위한 포르노가 아니라, 남자들이 원하는 여성상이 바뀐 것이 아닌가 싶거든. 예전에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여성을 원했다면, 요즘은 훨씬 적극적이고 sex 자세를 리드할 정도가 되는 여성을 바라는 남성의 시각이 투영된 것이 아닐까??

N : 포르노그래피나 일반적인 예로물에서 주되게 시선이 여성의 몸에 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 같아. '처녀들의 저녁식사' 에도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좋게 평가될 수 있다해도, 너무 극단적인 거 같아. 사실 그렇게 살진 않잖아..

I : 글세 난 그런 점은 영화에서 허용될 수 있는 비약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은 카메라의 시선과, 흔히 남성의 입에서 하는 얘기들을 여자의 입을 빌려 얘기한 거 밖에 안되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해.

H : 집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처녀들의 저녁식사를 우연히 본 형부가 이게 영화나 쓰레기지라고 편팔 뛰고, 정말로 처제나 처제의 친구들이 이리나라는 무서운 의혹의 시선으로 날 바라 보던걸..

B : 모든 여자가 그렇지는 않더라도,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환상을 봤다는 점은 인정할 만 한 것 같아.

T : 여자 입에서 저렇게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하는 혐오. 또 지금까지 그것이 남성에게만 허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영역 침해도 느껴졌지...

S : 영화에 나오는 남자들도 브루스 윌리스 같은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라, 굉장히 평범하고 나약하잖아. 능력도 없고 여자한테 얹혀 살고...

Z : 영화가 정상적인 현실을 담고 있다곤 할 수 없잖아. 배경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친구와 애인이 sex를 하기도 하고, 여자는 그런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고, 부인이 있는 직장 동료한테 뺑기나고 묻기도 하고... 그런 약간은 뒤떨어진 상황 자체가 낯설었던 것은 아닐까? 난 굉장히 좋았거든. 자신의 몸에 대해 얘기한 거잖아. 여자들의 자위도 어렵지 않게 제시했고...

H :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로 자위해???

Z : 난 대부분의 여자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어렸을 때부터 성에 무지하게 길러져 왔고, 여성의 성적 쾌락 추구는 노는 년, 나쁜 년으로 인식되어져 왔잖아..

B : 가르침을 받았던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게 되지 않아? 난 야한 생각을 하면 오줌 마려운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왔고, 그게 나쁘지 않아서 야한 생각도 하고...^^

I : 난 어렸을 때 영 레이디나 주부생활 같은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어...(모두 공유, 그러나 T만이... '난 아니야!'라며 강력하게 주장!) 어렸을 때부터 클리토리스 같은 말두 배웠구... 여자의 쾌감은 클리토리스를 통한다는 것두...^^

일동 : 맞아요!! 또해요! 또!!!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 자유롭게 싶다.  
타인의 시선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우리의 깨끗하고 순수한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다.  
오늘 우리의 수다는  
그래서  
정당하다!!

S : 근데 왜 사람들은 여자들이 자위를 할 때 필름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유머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 오이 안녕~ 가지 안녕~ ^^

T : 남자들이 자위를 할 때 sex할 때처럼 성기의 피스톤 운동을 하니까, 여자들도 sex할 때와 마찬가지로 필름을 거라고 생각하나 부지 뭐...

B : 나는 첫 번째 자위를 얼음을 가지고 했어.. 근데 느낌이 안 와서 그만 뒀어.

H : 난 정말로 내 이성을 가지고 자위한 적은 한번도 없어. 근데 자다 일어나서 웬지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Z : 썼니?? ^^

H : 어, 정말 뭔가 한 듯한 아련한 그 어떤 느낌이 들었어..

B : 정말, 불쌍한 걸들... 이 나이 될 때까지 자기 성욕 해소도 못하고, 해소가 뭐야? 자기 성욕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죄를 짓는다는 느낌을 가져야만 하는 걸들... 정말 불쌍하다!!

Z : 그래, 오늘 많이 얘기 한 거 같으니까, 그만합시다. 그냥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의 세계에 소용을 건 듯한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얘기는 웬지 많은 검열을 거쳐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걸요.. ^^

I : 이렇게 우리의 얘기를 자유롭게 얘기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히의 세계에 건 소용에서 이긴 것 같아요.



위치: 성환관 1층,  
학생회관 1층,  
도서관 열람실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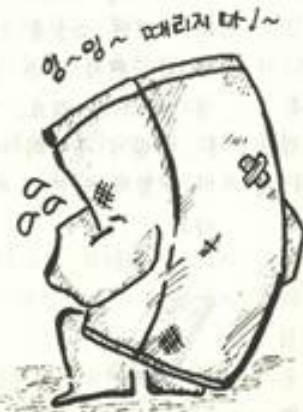
궁금하셔요?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들어와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생만을 위한 휴식공간!  
학생회관 휴게실은 남대도 있대요~  
그렇기때 여학생 휴게실 예비비 있다는 소문이...  
공익 남학생 절대영구!!

불쌍한 자판기  
때리지 마세요.  
충여로 전화주세요.



우씨-  
돈 내다!

자판기가 고장났거나, 돈을 먹었다구요?  
충여로 전화하시거나 달려오세요!!  
물건을 대신 드릴게요~  
충여(2878) 학생회관 2층

## Hot issue #1

## 청바지 사건??

이탈리아 대법원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은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여성단체와 정계 및 문화계 인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10일 대법원이 보수적인 전통이 강한 남부에서 45세의 운전교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18세 소녀 로자영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면서 비롯됐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청바지는 그 바지를 입은 여성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벗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이런 판결에 대해 여성계와 정계 및 문화계 인사들은 11일 일제히 "치욕적이고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여성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번복될 때까지 치마 대신 청바지를 입고 시위에 들어갔다.

마레타 소코카 법무장관도 "대법원은 청바지에 지퍼가 붙어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20년 뒤로 후퇴했다고 분개했다.

제작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다리오 포의 부인인 배우 겸 여권운동가 프랑카 라메도 자신도 강간 피해자의 하나라고 밝힌 뒤 청바지를 입은 여자라고 상대가 여자를 강제로 눕힌 뒤 주먹 등으로 위협해 옷을 벗길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치욕적인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 여성 대법원 법관도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 모두 고루한 사고방식에 집착하고 있는 남성이라면서 동료 법관들을 비난했다. 언론들도 일제히 대법원의 판결을 머릿기사로 보도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라 스타 탐파>는 "청바지, 강간을 위한 구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여성 독자들에게 "로마 법정을 통과할 때는 치마를 입으세요"라고 권고해 대법원 판결을 조롱했다.

이탈리아 법률상 대법원 상고심 판결은 최종적인 판결로 번복이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로마 AFP=연합뉴스)

청바지 = 정조대 ??

청바지는 그 바지를 입은 여성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벗길 수 없기 때문에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는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구?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면 강간을 당해도 입도 뻥끗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럼, 선반 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올려놓았다가 집에 온 손님이 그 반지를 슬쩍 가져가도, 다시 달라고 할 수 없는 거겠네? 가져가라고 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재길!! 정말이지 청바지가 정조대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요즘은 청바지 종류도 다양해져서 옛날처럼 딱딱한 청바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힙합 바지, soft-jean 등의 부들부들한 청바지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바지들은 완전 몸매 바지 같아서 밑에서 살짝만 잡아 당겨도 훌렁 벗겨질 것 같더만...

그리고, 도대체 요즘 성폭력 범들은 청바지 하나 혼자서 못 벗는단니까? 요즘은 5살만 돼도 혼자서도 잘 한다던데... 정말 남자가 청바지를 혼자 못 벗긴다면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일 청바지만 입고 다녀야겠다! 쏘!

이탈리아의 여성 국회 위원들이 이번 판결이 번복될 때까지 계속 청바지를 입고 시위를 한 다지? 그들의 소송이 승리하기를!!!

지난 1월 4일 서울 고등법원은 75세의 한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승낙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2년간 결혼 생활에서 할머니가 받은 모든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그간의 생활을 건디다 못해 큰딸 집으로 피신해 살고 있는 할머니를 철도죄로 고소한 할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고령에 정신장애 탓이라며 오히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를 돌보고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이혼을 허락 할 수 없는 이유는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할아버지의 부당한 대우가) 52년간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52년간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당하며 아내로서의 대접은 커녕 최소한 인간의 권리조차 무시당하고 살아온 한 여성에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굴중의 삶을 계속 이어가라고 '법'이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전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가부장적 가치관을 잣대로 혼인생활을 계속하라는 판결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이 나라 여성들은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서 계층, 학벌, 직업,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남성들보다 억눌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했을 때부터 무시하고 욕하고 때리기까지 해서 거의 매일 이혼을 생각했지만 '이혼녀'라는 손가락질, 생계문제 특히 어린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적도 혼자 살 자신이 있으니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루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하며 머리에 서리가 내린 여성들이 오늘도 상담실에 들어선다.

10년 전만 해도 이웃 일본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황혼 이혼'이 어느 덧 우리 사회에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혼은 필요악이다. 서로 노력하고 대화하며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물론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사람이 동등한 인격으로 서로를 대접할 때 가능하다. 일방이 무조건 참고 순종하고 견디야 하는 상황이 어찌 '해로'란 말인가. 무조건 함께 늙어 가면 해로인가. 우리는 '해로'라는 말에서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세월을 함께 겪어내고 이제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아름다운 노부부의 모습을 상기한다. 그러나 바로 어제 고등법원이 '해로하시라'며 패소 판결을 내린 75세 할머니에게 '해로'란 끝 모르는 날까지 무작정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여 견디고 참으며 노예 같은 삶을 계속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이 비슷한 사건으로 패소 판결을 받는 71세 할머니 사건 이후, 상담소를 찾은 많은 여성들이 "이혼 소송 해도 소송 없겠네요"라며 잔뜩 움츠린 모습들을 보여 마음이 아팠다. 75세라는 나이로 '오죽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그 할머니의 아픈 마음을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 동계방중 총여엔 무슨 일이 있었나?



### 새내기 새로 배움터

우선 가장 중요했고, 큰 행사는 바로 새내기 새로 배움터 (이하 새터) 자리였지요. 총여학생회는 단위의 성격상 특정한 단위가 없는, 모든 단위가 바로 우리의 기층이기 때문에 모든 새터에 참가했어요. (2월 22일~2월 28일 무려 6일 동안 양평과 도고를 전전하며 드디어 인문대 새터는 3.8 전국 여성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느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T.T)

총여는 "내 안의 나를 벗고, 이제 당당하게" 라는 기조로 새내기들을 만났어요. 기조가 가진 의미는 지금까지 사회에서 띄워준 안경, 정해진 틀을 벗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뜻이지요. 멋지지 않나요? \*00\*~

새터에서 중앙 공연과는 분리하여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각 단위에 다시 한번 감사...) 퍼포먼스를 선보였답니다. 첫날 정통대를 시작으로 의대, 전자, 기산, 자연대, 화생, 환도의 총 7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말이 쉬워 7번이지 정말 죽음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남삼식과 여종말의 인생역정을... 알리고자 했던 내용은 남자, 여자의 차이가 태어난 것인가, 길러진 것인가 돌아보고 그런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한사람의 인간으로, 자기 자신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내기들의 일광적인 성원으로 무사히 공연을 끝마쳤답니다. ^^



### 총여학생회 집행부 합숙

왜 총여만 집행부 합숙을 가냐고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던 합숙이지만, 저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총여가 단위 학생회와는 달리 여성운동을 하는 자치기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성학이나 여성주의 전반에 관한 교양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2박 3일 동안 양평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책읽고, 토론하고, 책읽고, 토론하고... 정말 뻘뻘 합숙 훈련을 받았어요.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기간동안 저희는 학생운동, 학생회, 여성운동, 성폭력 전반에 대해 논의를 했구요.

1년동안 사업함에 있어서, 저희 공부 한 것을 학우여러분과 함께 할테니 지켜봐 주세요!

## 여학생 간부간담회

여학생 간부 간담회는 1월 25일날 있었구요. 화학생물공학부 여학생회장님, 환경도시공학부 부회장님, 의대 여학생회 대외협력국장님, 정보 통신대 부회장님이 오셨었어요.

여성문제들을 학생회 여학생 간부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단위와 여성운동을 함께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비록 많은 단위에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 학대 간부 수련회

총학생회를 비롯한 전체 학생회 사람들이 새터 장소를 돌아보고, 간부 수련(?)을 하기 위해 하는 정기적인 행사입니다. 예전에는 뻥뻥 교양과 열면 토론이 열렸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힘든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 모처럼의 휴식의 기회가 되어 좀 널널했지요..

호호 총여에서는 짱뚱, 순무, 인순, 콩아가 갔답니다.

## 잠깐 광고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교내 성폭력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율곡관 370호에 가면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실거예요.

비단 성폭력 문제 뿐 아니라도 여러분의 고민을 잘 들어 주실거예요.

학생상담센터 : 구내전화 2191 / 최정인 선생님을 찾으세요

# 99년 1차 외부멋거리



## 도망이가 바라본 신데렐라 VS 마법소녀 트라이 리나의 이야기...

신데렐라를 모르는 여자가 있을까? 우리 나라의 여자들 중 신데렐라를 모른다면 그녀는 필시 \*\*\*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필자는 해본다..



그녀 신데렐라는 분명히 착한 여자이다.. 먹기도 조금 먹고 돈을 밝히지도 남자를 밝히지도 않는다.. 더구나 이쁘기도 한 여자이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 신기한 동물이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한 동경을 어렸을 때 한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특히나 엄마가 자신을 구박할 때는 엄마가 혹시 계모가 아닐까 의문과 함께 말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러한 동경들이 어렴풋한 구속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사람들은 여자들에게서 신데렐라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우리 혹은 내가 신데렐라처럼 착하고 순종하며 이쁘기를 기대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왕자도 아니면서 말이다. (\*라 재수 없는 경우가 아닐 수 없다.)

그에 반하여 리나 인버스(1995년작) 그녀는 돈을 왕 밝히며 먹기도 엄청 많이 먹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먹고산다. 거기다가 남자를 기다리며 살지도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능력에 만족하며 마계와 천상계의 싸움에서 인간이라는 중간 계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그 싸움을 종결시킨다... 그녀는 사랑보다는 인간이라 불리는 호모사피언스에 대한 믿음으로 일을 진행시키며 어떠한 일이 닥치든 그것을 자신이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성공을 더 많이 한다.

우리는 이제 두 여자에 대해 간략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필자가 이런 말을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 이유는 뭘까? 필자는 여기서 이런 말이 하고싶다.

과연 신데렐라와 리나 중에 누군가와 조금 더 비슷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무나 잡고 물어보자.. 이들 중에 누구와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신데렐라와 비슷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몇 년 전 여성잡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든가 착한 여자 콤플렉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콤플렉스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나 자각지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왜 신데렐라에 대해 갈망하고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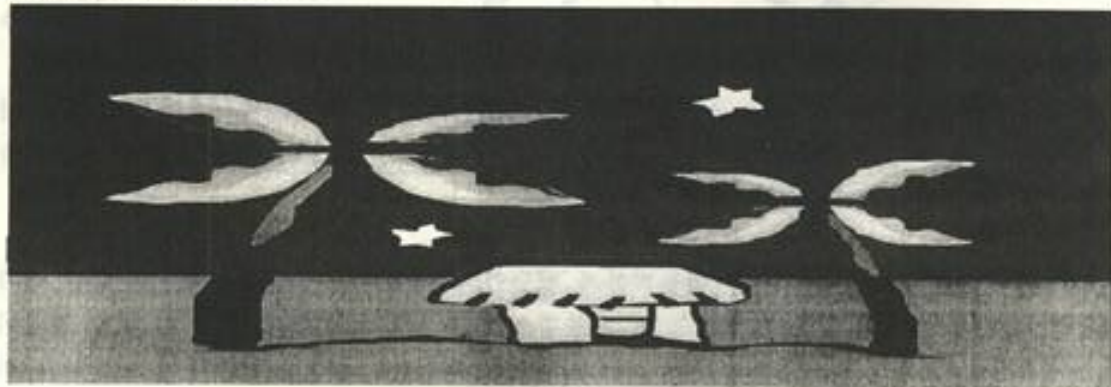
격지심을 가지는가..

한번 둘러보자,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남자들이) 여자는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고 남자의 보살핌을 받고 그 속에서 아리따운 꽃을 피워야한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남자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세상은 변하고 있다. \*라 명칭한 남자를 제외한 우리 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받아들이고 있는 곳은 상품시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주위의 상품시장 또한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은 이 시대를 반영하면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반응으로 나타난 여주인공이 리나 인버스다...(이것은 필자의 왜곡된 판단일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리나 그녀는 줄라 많이 먹는다. 먹을 것 하나로 친구와 마법으로 다루어 가게를 부셔버리기도 한다.(참고로 그녀가 살고있는 시대는 적자생존의 시대이다. 괴물도 등장하며 용 족도 등장하는 한마디로 우스운 시대인 것이다.) 그녀는 일이 들어왔을 때 거래를 할 줄도 안다. 제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장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리나는 또한 지구를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 가공한 능력의 마법의 주문을 외울 줄도 알고 사람들과 전략을 세울 줄도 안다. 그리고 그녀의 능력 중 주요한 하나는 스토리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신데렐라 스타일의 여자들에 대해 무시할 줄 아는 머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능력은 소위 능력주의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필히 가져야 할 능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필자는 해본다.

이 시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능력주의 시대이며 개인주의 시대이다. 좋게 말해 개성시대인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자신이 아닌 결코 자연스럽게 않고 당연해지지 않는 신데렐라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왜 난 저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혹은 나도 착한데 왜 난 왕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바보 같은 질문에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시대는 변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시대에 다시 신데렐라가 주류가 될지도 모르지만 밀레니엄 버그 뎀에 골치아파하는 지금은 아니다...



## 돈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사람 여기 있소

등석

### 그게 바로 나호!

등록금 삭감 운동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랬겠지만 조금 황당했다. 무슨 수로 등록금을 삭감시키려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학자투쟁 때면 항상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 같았다. 등록금은 어릴 때부터 신성불가침의.. 그 무엇이였다. (나는 뭔가 정의 내리는 것에 익숙치 않다.) 학교에서 주는 고지서를 무슨 무슨 명목이 있는 지도 모른 채 그냥 냈다. 그것은 학생의 의무였고.. 또한 학생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방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사실 알고 보면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등록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야 하는 것이니깐 냈다. 그냥 ... ^^;;

그렇지만 장학금이 팔리고 (이래봐도 왕년에는 4년장학이었다...) 주위사람들의 압력에 부딪치게 되자.. 이젠 장난이 아니었다... 학교를 그만두어야하는가.. 아니면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벌어야하는가.. 아니면 불효녀 되고 아버지한테 돈을 얻던가.. 그렇다면 집에 그만큼 돈이 있을까.. 집안 사정이 특차결정의 중요한 요인이었기에... 내게는 너무도 힘든 고난의 나날이었다.

어린 나 혼자 감당하기에 등록금은 너무도 비쌌다.. 흑흑...(아직도 슬프다...)

이런 나에게 등록금 삭감운동은 너무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IMF이후 우리 부모님의 실질 임금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만은 자기자리를 지켜왔다. 구조조정의 바람을 타고 대학 내 교직원들의 임금도 줄어들었고, 교수연구비도 삭감된 이 마당에 등록금이 오를 만한.. 아니 그대로 있을만한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으음.. 심각한 예기의 시작이다.)

단지 돈 몇 톨 깎자고 땡장 부리는 것이 아니다. 등록금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 부당하게 쓰인다면 그것을 밝혀내고, 실제적인 등록금을 책정하자는 것이다... 등록금 삭감하자는 게 잘못된 것인가... 학교에 괜한 시비를 거는 것인가.. 그렇게도 무모하게 보인다는 말인가... 정당한 요구.. 학우들이 마땅히 알아야만 하고 분노해야 하는 진실에 대해 알려낸 것이 무슨 잘못이라는 것인지... 이 노무 학교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학교측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진짜 상업적으로 성공한 학원에 다니고있는 학원생에 불과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아마 도서관에서 레포트나 써야겠지...(그렇다고 도서관에서 레포트 쓰는 게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학생은 학교를 이끌어가는 일주체이다. 고객이 아닌 주인이며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마땅하다. (으음...너무 흥분했군..)

이러한 사실들이 나로 하여금 전사가 되도록 했다...(참고로 나는 전사라 불린다. 사실 그렇게 나를 부르도록 주변인들을 억압한다..^^\*)정계가 두려웠다면, 그리고 이 운동이 정말 승산도 없이 한번 쥘해보는 것이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너무 특별해서.. 학우들을 위한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내 동기, 내 선후배의 일이며 내 일이기 때문이다.

알고 있다면, 그리고 분노한다면 신념대로 행하라.

등록금삭감운동은 남이 해주는 운동이 아니다. 바로 내가 해야하는 일이다.

나는 등록금을 삭감시킬 것이다!!!

## 5대 총여학생회가

민주적인 학생자치 실현을 위한 비상 대책 위원회에

동참하게 된 이유

5대 총여학생회는 학기초부터 등록금 삭감의 정당성에 대해 공유하고, 등록금 삭감 운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기성회비의 부당성을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기성회비 자율납부를 통한 등록금 삭감의 의지가 학교 전반에서 높아져 갈 무렵, 학교측에서는 등록금 삭감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돌렸다. 대자보를 붙였다. 허가 없이 새터를 다녀왔다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사상 유례없는 초강경 징계를 내렸습니다(인문대 학생회장-퇴학, 무기정학-3명, 유기정학-5명). 우리는 가장 진보적인 공간이라는 대학 안에서 우리의 신념에 대해 말할 권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징계라는 폭력으로 막으려는 학교측의 자세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등록금 삭감과 부당 징계라는 큰 사안이 학내에 문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총학생회는 난데없이 한총련 탈퇴 총투표라는 찬물을 끼얹었고, 한총련 탈퇴는 등록금 삭감과 부당 징계 문제를 뛰어넘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총련 탈퇴는 총학생회의 공약이고, 총투표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우(특히 새내기)들이 한총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 등록금 삭감이 시급하므로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중앙 운영위에서는 여러 차례 시기의 문제에 대해 제기했지만, 총학생회는 공약이었다는 것만 내세우며, 3월 한총련 총투표를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에서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한총련 탈퇴 입장을 공고히 한 상태에서의 총투표는 학우들을 단순히 O/X 투표로 물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올바른 형식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대자보판은 이러한 입장을 가진 몇 개 단위와 총학생회의 공방전으로 어지러워만 갔습니다. 같은 입장을 가진 몇몇 단위들이, 총학생회의 독단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비대위는 한총련 탈퇴 총투표 연기와 등록금 삭감, 그리고 부당한 징계 철회라는 크게 세 가지의 사안을 연대 점으로 잡고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5대 총여학생회 또한 한총련이나 등록금 삭감 운동에 있어서 약간은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큰 연대점 안에서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총여학생회 내부에서는 많은 논란과 고민이 있었지만, 비대위를 통해 학우들에게 많은 내용을 알려낼 수 있었고, 그 학우들의 힘으로 한총련 총투표 연기와 전체 학생 대표자 대회의 조속 실시, 부당 징계 철회를 위한 투쟁대회 등의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서 또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총여학생회의 여성주의적 관점에 대한 고민 없이, 투쟁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내부의 사업을 함께 가져가려는 의지가 집행부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발전적 해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총여학생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지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리한 실천을 모두 담보할 수 없는 것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즈음이지만, 적어도 가장 올바른 생각만을 할 것이며,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 총여학생회에서 또 1999년 무슨 일이 벌어질까?



**3월 여성의 날** 생일은 알면서 여성의 날을 모르신다구요?

3월 8일은 여성의 날입니다. 이날 5대 당당한 총여학생회는 여성 노동자 대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참여해 보지요...

**혜오름식** 5대 당당한 총여학생회의 1년 사업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입니다. 다과를 즐기며 다채로운 행사를 즐겨보세요.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4월 취업한마당** - 니도 일하고 싶다

3일 동안 취업에 관한 많은 것을 알아봅니다. 전문 강사의 강연, 졸업한 선배들의 실제 경험담, 자격증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취업의 기반을 다져 보지요. 이 형사이후로도 5대 당당한 총여학생회는 취업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을 뽑아 교내 곳곳에 비치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 여학우 체육대회** - 웃자! 뒹집자! 놀자!

매년 여러 다른 단위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는 있지만, 여학우들은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뒹집어서 여학우가 놀고, 남학우들이 응원을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죠. 기가 막힌 종목이 아주 많아요. 상상도 못할 뒹푼이도 있습니다.

**6월 기활 학교** 기활 학교가 뭐지? 기지춘 활동에 관한 예비 교양이예요.

기지춘 활동 그게 뭐냐구요? 그니까 교양이 필요한 거죠... 올꺼죠?

**농활** 농민 학생 연대 활동의 약자입니다(절대로 농촌 봉사 활동이 아니라고요). 멀게만 느껴지는 신토불이 몸소 체험해 보는 자리를 가져요. 땀 흘리고 먹는 새참아~ 끝내줘요!

**방중 기활** 드디어 간다

○○ 기지춘 활동에 대한 예비 교양을 마치고 동두천으로 떠나요~ 보람된 일이 될 거예요.

**9월 여성노동주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생소하죠? 여성노동이라고 하니...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고... 난 남학생이니까... 하지만 졸업후 취직하면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심포지엄과, 영화상영을 통해서 여성 노동에 대해 공부해보는 기간입니다. 4월의 취업한마당과 연관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3일 간의 행사예요. 어렵게 생각될지 몰라도 한 번 참여해 보세요. 후회는 없을 거예요...

**여학우 캠프** 여성들만의, 여성을 위한 캠프가 온다! 아~ 놀러가자!

그치만 무조건 놀기만하는 캠프가 아닙니다. 여학우들끼리 모여서 공동의, 혹은 개개인의 문제를 푼 터놓고 이야기하며 풀어나가는 장을 마련하고, 여성이 꼭 알아야 하지만 모르고 살아왔던 것을 공부하는 캠프가 될 거예요. 여학우만의 캠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10월 여성 문화축제** - 까발려서 얘기하자!

아~ 축제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축제가 될걸요. 암묵적으로 쉬쉬~ 해왔던 것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여성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다루어 보아요. 마지막 날에는 광란의 락카페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11월 6대 총여학생회 선거** 어느덧 1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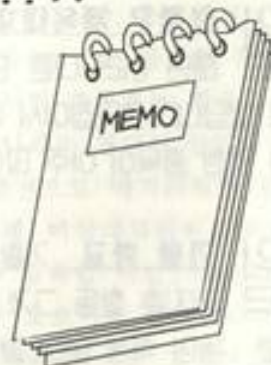
아주아주 중요한 일이죠.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학생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라고. 여학우 여러분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일이니까 꼭 참여해야겠죠~

## 우리를 기다리는 썸있는 일상의 사업들...!!

### 여성학 맛거리

맛거리는 세미나의 순수 우리말이죠. 여성에 관련한 책이나 논문, 기타 자료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해 봐요. 음, 비디오를 보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풀어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올바른 토론 문화의 정착에도 한 몫 단단히 할걸요? 한 달에 한 번! 놓칠 수 없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많이많이 오세요~!!



### 주제별 기행

여성 문화에 관한 것들---

열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몸소 체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구해요. 여성의 문제를 다룬 연극 관람이나, 정신대 할머니들에 관련한 수요집회 참여, 나눔의 집 방문 등의 행사가 진행될 거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만들어 나갈 행사예요.

꼬~옥 참여 해 보세요~!!

